대구·광주·경남대표처 합동 유커몰이

재중국 지방정부 공동 관광설명회 개최
韩中관계 개선에 따른 선제 전략

중국주재 지방정부가 함께 중국관광객 유커몰이에 나섰다. 대구광역시 상하이대표처(소장 서동달), 광주광역시대표처(소장 권현준), 경상남도대표처(소장 조은구)가 지난 10일 오후 3시 홍차오진장호텔(虹桥锦江大酒店)에서 상하이원경국제여행사 등 14개사를 초청 합동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과 관계개선에 따른 단체관광객 허용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선제적 전략으로 지역방문 중국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베이징과 산동성이 중국 내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한 데 이어 우한, 충칭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전면적인 해제에 대비 지방정부 합동으로 상하이에서 관광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관광홍보 설명회에서는 시·도별 관광홍보 동영상 상영에 이어 각 대표처별로 관광·축제 및 명소 등을 PPT로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김광호 상하이직공국제여행사민항영업부 대표는 "시·도가 한자리에서 관광설명회가 개최돼 여행사의 입장에서 지역관광 명소 등에 대해 지역적 특색을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 협업사업으로 3개시·도가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경비를 부담해 개별행사 개최 시 보다 비용면에서 대폭 절약됐다. 또 홍보면에서는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중국 관광객 증가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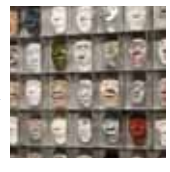
한편, 대구시대표처, 광주시대표처, 경상남도대표처 소장은 이번 상하이지역을 시발점으로 관광수요가 많은 다른 지방에서도 '찾아가는 미니관광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ENTS

04 기업뉴스
LG화학,우시에 합작법인 설립 동력배터리 핵심 원료 공급 »

07 종합
빵빵~ 클락션 울린 당신, 딱 걸렸어 »
음파 감시카메라로 단속

09 전시
감성 충만 5월 색다른 전시 »



11-15 핫이슈
매운 맛의 강자는 누구? »
후난차이(湘菜) VS 쓰촨차이(川菜)

17 특례입시
아주대, 인하대 특례입시 설명회 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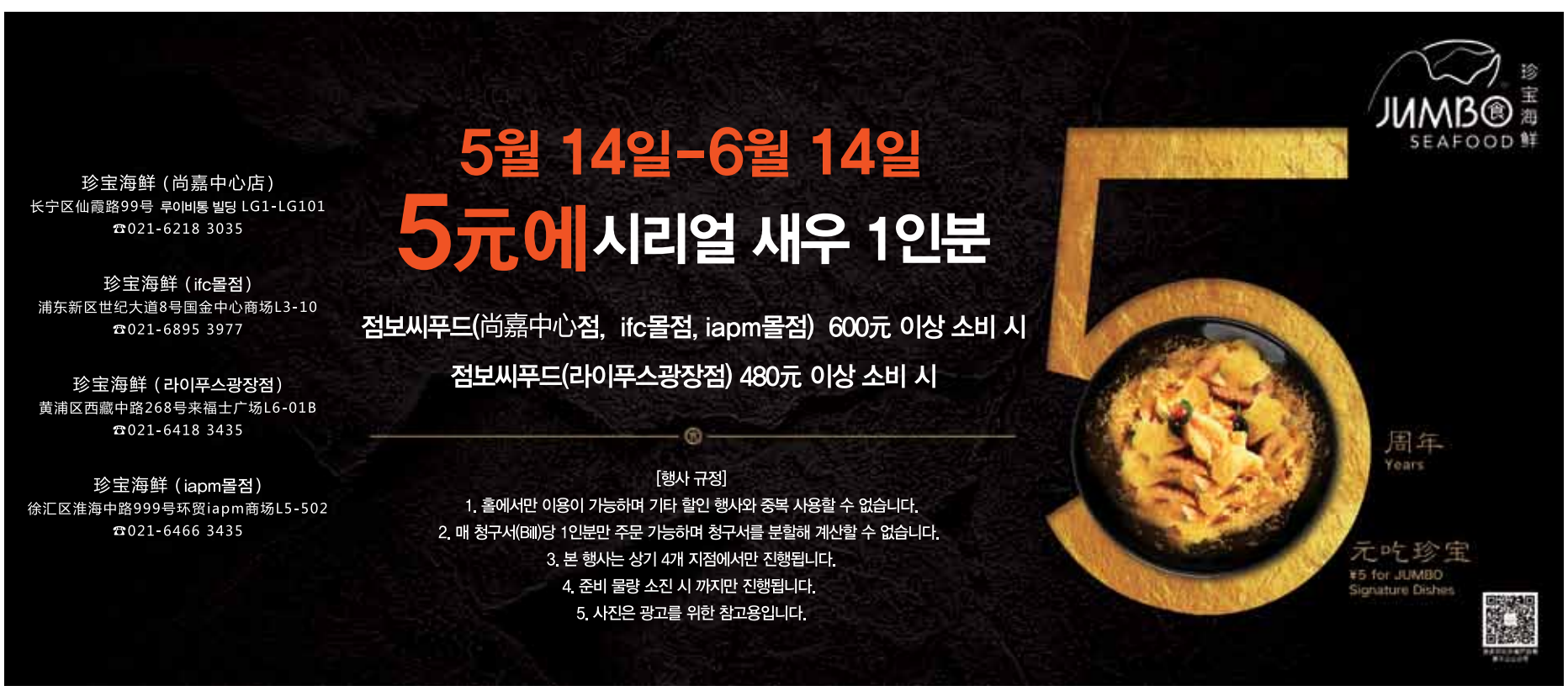
'재중 외국기업, 중국 주권과 영토 존중하라'

中 외교부, 홍콩·마카오·대만 국가표현 삭제 요구

최근 홍콩, 마카오, 대만의 표기 방식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6일 "중국에서 운영 중인 외국 기업은 마땅히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민항총국(CAAC)이 전 세계 외국 항공사 36곳에 공문을 보내 "홍콩, 마카오, 대만을 국가로 표현하는 홈페이지 및 광고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미국 백악관은 5일 성명을 통해 "이는 전체주의적인 난센스"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시민과 기업에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면서 "이 같은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은 마땅히 중국의 주권과 완전한 영토를 존중하고,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중국인의 민족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미국 측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세계 상에 '하나의 중국'은 변할 수 없으며, 홍콩, 마카오,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국에서 운영 중인 외국 기업은 마땅히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기자